

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: 연령차이

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s and Problem Drinking : Age Differences in Korean Male Workers

전경숙¹ · 최은숙²

¹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,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/ 20(2), 119-129, 2011

목적 : 근로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 지각이나 결근이 발생하고 근무태만, 조직 몰입 및 업무 수행능력 저하 및 사고와 질병 등의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.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“2006년 근로환경조사” 자료를 이용하여 남성근로자에 국한하여 연령그룹에 따른 음주 수준 및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,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특성과 문제음주와의 관련성이 연령그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본 연구는 근로환경조사의 만 15세 이상만 64세 미만 대상자(10,043명) 중 20~64세의 성인남성 3,2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, 조사내용은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유럽연합의 제4차 Working Conditions Survey 조사표를 참조하여 노동력구조, 작업환경, 작업특징, 작업조직, 작업시간, 조직의 의사소통, 사회심리적으로인, 건강영향지표, 직업에 대한 만족도, 흡연 및 음주,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해 면접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가구 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 1명을 면접조사 하였다

결과 : 우리나라 20~64세 남성 근로자의 음주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인 남성 근로자의 39.7%가 문제음주였으며 연령별로는 35~49세 연령그룹이(41.2%) 20~34세 연령(40.4%) 및 50~64세 연령 그룹(34.8%)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($p < .05$). 중년 근로자에서는 동료로부터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문제음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($p < .05$) 젊은 근로자에서는 상사로 부터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(41.6%) 그렇지 않은 그룹(31.7%)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($p < .05$). 모든 연령 그룹의 근로자에서 직무의 자율성이 높은 경우는 직무 자율성이 제한된 경우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. 젊은 연령 남성근로자의 경우 지적 직무요구가 높은 경우(51.4%)는 그렇지 않은 그룹(38.6%)에 비해 문제음주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결론 :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직장인의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사회심리적 작업환경 요인관리에 있어 각 연령 그룹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.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문제음주 수준의 심각성과 사회심리적 작업환경이 남성 근로자의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, 20~34세 연령군에서는 지적 업무요구량을, 35~49세 연령군에서는 동료 및 상사의 지지를, 50~64세 연령군에서는 업무자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문제음주 예방관리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